

국어 영역(A형)

제 1 교시

1

[1 ~ 2] 다음은 학생과 교사 간의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민 지: (힘없는 목소리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응, 민지구나. 그런데 ㉠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민 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아, 선생님……. (한숨을 쉬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 하지만 네 표정은 그게 아닌데. ㉡ 담임선생님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니? 편하게 말해 봐.
민 지: 저……. 사실은 어제 은영이랑 좀 다투거든요. 그래서 속상해요.
선생님: 아, 그랬구나. ㉢ 은영이는 네 단짝 친구라서 더 속상했겠구나.
민 지: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엔 별일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줄 수 있겠니?
민 지: 어제 은영이랑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은영이가 30분이나 늦게 왔어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야! 왜 이렇게 늦었어. 넌 맨날 늦니? 빨리 좀 와.”라고 했더니, 은영이가 “넌 친구한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라고 화를 내며 가버렸어요.
선생님: ㉣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당황했겠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속이 상해 있구나.
민 지: 사실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저인데, 왜 자기가 화를 내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음……. 민지야, 선생님 생각에 은영이는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너의 말에 화가 난 것 같아.
민 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말했어야 할까요?
선생님: 그럴 때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나’의 감정이 어떤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좋단다. 그러면 상대방도 네 감정을 알 수 있게 되지.
민 지: ㉤ 아…….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선생님: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엔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을 부드럽게 부탁하듯 말하는 거야. 명령조로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물음의 형식으로 돌려 말하는 거지.
민 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말했다면 좋았겠네요.
선생님: 그래,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라고 말해보는 것이 어떨까?

1. 위 대화를 고려할 때,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의 상황을 짐작하는 데 대화 상대의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가 상대방의 발언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③ ㉢: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의 심정에 공감하는 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 대화 참여자 간에 공유하고 있는 상황 맥락이 대화 상대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⑤ ㉤: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는 데 상대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반복할 수 있다.

2. 대화의 흐름과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넌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것 같아.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면 안 될까?
- ②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잖아. 우리가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 잊었어?
- ③ 너를 오래 기다리다 보니 힘들어서 화가 좀 나네. 다음부터는 늦지 말고 약속 시간을 지켜 줄래?
- ④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이 불편했어. 친한 사이일수록 약속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걸 잊지 마.
- ⑤ 너는 시간관념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매번 친구로서 속상해. 앞으로는 서둘러 준비해서 약속 시간에 좀 맞춰 와 주겠니?

3.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568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오늘은 ‘한글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대학교 국문과 김○○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교수님, 이제 한글은 우리 민족만 쓰는 글자는 아니죠?

김 교수: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글을 사용하는 인구는 대략 7,900만 명이고, 국제적인 교역과 문화적 교류의 확대대로 한글을 사용하는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추세 속에서 ‘한글의 세계화’라고 하면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교수님은 이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교수: 네, 잘 알려진 것처럼 ○○족에게 문자를 보급하다가 중단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보급부터 하고 보자는 성급한 추진 방식이 문제였죠.

진행자: 아, 그랬군요. 그게 문제였군요. 성급한 추진 방식으로 보급이 중단되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 교수: 문자를 보급할 때에 문자를 사용할 나라의 문화, 정치적 상황, 언중들의 자존심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최근 교수님께서 정 책토론회에서 ‘한글의 세계화’ 방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만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교수: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안 하나를 소개하자면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표기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을 국제음성기호와 같은 표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좋은 방안이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국제음성기호처럼 사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김 교수: 물론입니다. 한글은 로마자보다 기억해야 할 글자 수가 적고 낱글자의 모양이 각각의 음가를 설명해 주는 등 국제음성기호처럼 사용하기에 이점이 많습니다. 이런 한글의 이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 ① 진행자는 김 교수가 제안한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② 진행자는 문제 상황을 이해한 후 그에 대한 해결책을 김 교수에게 요청하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제를 안내하며 의사소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김 교수는 진행자의 말에 동의하는 한편 진행자의 말을 일부 수정해 주고 있다.

[4~5]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서 대원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 중에 친구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학생의 반응을 살피며)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잘 듣고 방법을 익혀 두셔야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췄을 때 실시하는 응급조치를 말합니다. 심폐소생술은 크게 ‘의식 확인 및 119 신고 단계’, ‘가슴 압박 단계’, ‘인공호흡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식 확인 및 119 신고 단계’에서는 환자를 바로 눕힌 후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만약 의식이나

호흡이 없거나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고 혈맥이는 등의 상태가 나타난다면, 즉시 주변 사람들 중 한 명을 지목해서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주변에 자동제세동기가 있다면 가져올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가슴 압박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잇는 선의 정중앙 부분을 짚지 긴 손의 손바닥으로 힘껏 누릅니다. 이때, 자세가 중요한데요. 자, <그림>을 봐 주세요. (<그림>을 가리키며) <그림>처럼 팔꿈치는 펴고 팔은 환자의 가슴과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 가슴 압박 깊이는 적어도 5cm 이상으로 하고,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그림>

마지막으로 ‘인공호흡 단계’에서는 한 손으로는 환자의 이마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마를 젖힌 손의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은 뒤 환자의 입에 숨을 2회 불어 넣습니다. 이때 결눈질로 환자의 가슴이 상승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나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2의 비율로 반복합니다. 이후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거나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잘 아셨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인체 모형을 대상으로 직접 실습해보겠습니다.

4. 강사의 강연 계획 중 위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강연 내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여 청중의 집중을 유도해야 되겠군.
- ②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겠군.
- ③ 자신의 경험담을 활용하여 강연 내용에 대한 전달력을 높여야겠군.
- ④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겠군.
- ⑤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청중에게 강연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해야겠군.

5.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보기>의 실습 과정을 점검하였다.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심폐소생술 실습을 위해, 영호는 인체 모형에 다가가 ㉠ 인체 모형의 어깨 부분을 가볍게 치면서 반응을 살폈다. 그 다음 ㉡ 주변의 한 명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외쳤다. 그리고 인체 모형의 가슴 부분에 ㉢ 짚지 긴 손을 대고 압박을 시작하였다. 가슴 압박을 30회 실시한 후, ㉣ 한 손으로는 이마를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을 들어 올리고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하였다. 영호는 강사가 그만하라고 지시할 때까지 ㉤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였다.

- ① ㉠과 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의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은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에서 학생의 팔은 모형의 가슴과 90°를 유지하도록 해야겠군.
- ④ ㉣은 인공호흡을 실시하기 전에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겠군.
- ⑤ ㉤에서는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 확인 및 119 신고 단계부터 인공호흡 단계까지를 반복하는 것이겠군.

국어 영역(A형)

3

[6~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장애인 서틀 버스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청에 건의하기 위해 (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나)를 썼다.

(가) 개요의 초안

목 적	장애인 서틀 버스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내 용 구 성	○ 처음: 건의 목적 및 운영 실태를 제시함. ㉠ ○ 중간: 장애인 서틀 버스의 운영상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함. 1. 운영상의 문제점 제시 가. 장애인 서틀 버스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 ㉡ 나. 장애인 서틀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 ㉢ 2.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건의 가. 장애인 서틀 버스의 배차 간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건의함. ㉣ 나. 장애인 서틀 버스를 운행하는 인력의 전문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건의함. ㉤ ○ 끝: 장애인 서틀 버스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시행을 촉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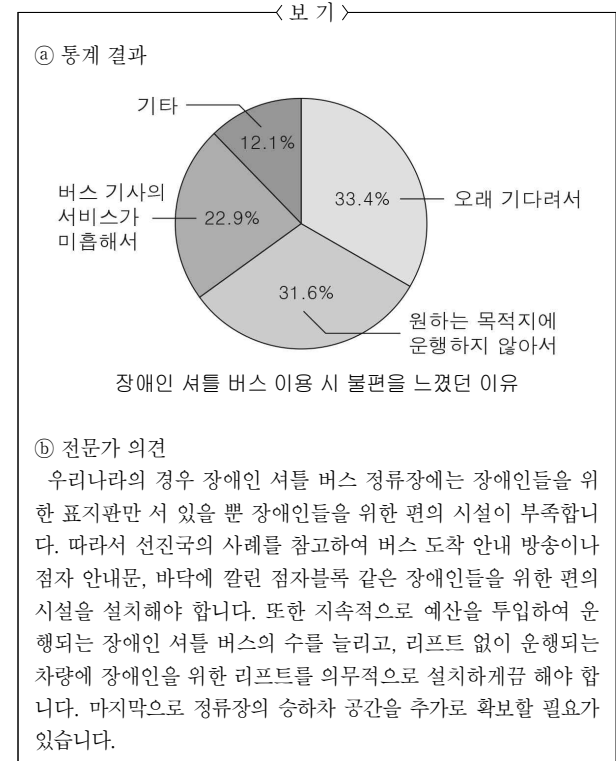
(나) 글의 초안

제목: 장애인 서틀 버스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세요.	
제안인: □□고등학교 ○○○	제안일: 2014.11.○
건의 대상: 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팀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니다. 저는 장애인 서틀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제 친구의 불편함을 덜어 주고자 이 글을 씁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 서틀 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서틀 버스 운영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버스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배차 간격에 대한 만족도가 45.4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버스 기사가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서틀 버스 기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의무화하여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장애인 서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버스 기사 외에 전문 교육을 받은 보조 인력이 차량에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서틀 버스는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문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6.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초안을 작성 후 <보기>의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보기>를 활용하여 (가)와 (나)를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을 활용하여 (가)의 '중간 1'에 '장애인 서틀 버스 노선의 다양성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나)의 두 번째 단락에 관련 내용을 제시한다.
- ② ㉤을 활용하여 (가)의 '중간 1'에 '장애인 서틀 버스 정류장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나)의 두 번째 단락에 서틀 버스 운영상 문제점의 하나로 제시한다.
- ③ ㉤을 활용하여 (나)의 세 번째 단락에 장애인 서틀 버스 배차 간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충분한 장애인 서틀 버스 차량의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추가한다.
- ④ ㉤을 보면 장애인 서틀 버스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가)의 '중간 1'에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장애인 서틀 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나)의 두 번째 단락에 관련 내용을 제시한다.
- ⑤ ㉣과 ㉤을 보면 장애인 서틀 버스를 탈 수 있는 승하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가)의 '중간 1'에 '장애인 서틀 버스 승하차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나)의 두 번째 단락에 서틀 버스 운영상 문제점의 하나로 제시한다.

8. 다음 [자료]를 읽고 [조건]에 맞게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안녕하세요? 또래상담 동아리 ‘푸른나래’입니다. ‘푸른나래’는 고민이 있어 움츠린 친구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고 당당하게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다툼이 생긴 친구들을 화해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담방을 개설하여 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고, 고민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심리 상담극도 하고 있으며, 다툼이 있었던 친구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는 ‘사과의 날’ 행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인정받아 우리 동아리는 ‘올해의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었습니다.

[조건]

1. 글의 내용을 반영하여 동아리 가입을 권유할 것.
2. 의인과 직유의 방식을 활용하여 표현할 것.

- ① 당신의 슬픈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푸른나래’는 당신의 밝은 미소를 되찾아 드립니다.
- ② 고통 받는 친구들의 슬픔에도 관심을 기울이세요. ‘푸른나래’의 따뜻함은 오늘도 학교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 ③ 당신은 친구 곁에 바위처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푸른나래’에서 친구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는 방법을 배우세요.
- ④ 친구의 아픈 마음이 어둠 속에서 해매고 있습니다. ‘푸른나래’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친구에게 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⑤ 고민하는 친구들 마음속에 햇살 같은 포근함을 전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희망을 속삭일 수 있도록 ‘푸른나래’로 오세요.

[9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자신이 관람한 공연에 대한 소개의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써 보자.

과제의 초고

지켜보지 말고 지켜주세요

지난 일요일에 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주관한 뮤지컬 ‘지켜주세요’를 관람했습니다. ㉠ 아름다운 주인공의 노래로 막을 연 공연은 2시간 동안 배우들이 신나게 ㉡ 노래와 춤을 추고 갑작스럽게 객석으로 다가가는 등의 행위로 공연장에 모인 관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 청소년 시기의 괴롭힘과 따돌림이 지금은 ‘폭력 사건’으로 다루어질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등장인물들이 모두 나와 합창하며 춤을 춘 마지막 장면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 대학교 연극영상학부 교수인 김OO 씨는 “이 공연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랑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청소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 되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공연을 관람한 후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이 교내에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런 공연을 더 많은 학생이 관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연에 대한 궁금증은 ㉤ 댓글을 다시든 메일을 보내 시던 관심을 보여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기에는 정말 아쉬운 공연입니다. 꼭 친구들과 함께 관람하러 가시기를 거듭 권해드립니다.

↳ 댓글달기

9. ‘과제의 초고’에서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높임의 표현을 사용한다.
- ②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인다.
- ③ 구체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난다.
- ④ 적절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주제를 뒷받침한다.
- ⑤ 매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10. ㉠ ~ ㉤을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수식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주인공의 아름다운 노래’로 고친다.
- ②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로 고친다.
- ③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뒷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 ④ ㉣은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되기를’로 고친다.
- ⑤ ㉤은 어미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댓글을 다시든 메일을 보내시든’으로 고친다.

11. <보기>의 ㉠과 같은 음운 현상이 나타난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음운 변동은 단어에 따라 한 번만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 단어 안에서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교체 후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 ㉠ 교체 후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 탈락 후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 첨가 후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① 꽃다발: [꽃다발] → [꼰다발]
- ② 낚두리: [낚두리] → [넉두리]
- ③ 뜻하다: [뜻하다] → [뜨타다]
- ④ 부엌문: [부엌문] → [부엌문]
- ⑤ 색연필: [색년필] → [생년필]

12.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¹ **의존명사**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이²

[1] **대명사**

①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2] **관형사**

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노력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³

[1] **조사**

① 일에 일을 더한 수, 아라비아 숫자로는 ‘2’, 로마 숫자는 ‘II’로 쓴다.

[2] **관형사**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① 그 수량이 둘임을 나타내는 말.

- ① ‘저 모자를 쓴 이가 누구지?’의 ‘이’는 사람을 뜻하므로 ‘이’의 용례가 되는군.
- ②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뜻풀이가 있으므로 ‘이’는 다의어에 해당하군.
- ③ ‘이’ [1]의 용례와 ‘이’ [2]의 용례를 통해 ‘이’는 조사의 결합 가능 여부에 따라 품사를 구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이 킬로미터를 걸으라.’에서 ‘이’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므로 ‘이’ [1]의 용례로 들 수 있군.
- ⑤ ‘이’, ‘이’, ‘이’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군.

13. <보기>의 예를 바탕으로 부사어의 특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엄마와 그녀는 닮았다. / *그녀는 닮았다.

㉡ 그는 밥을 안 먹었다. / *그는 안 밥을 먹었다.

㉢ 아빠가 용돈을 아이에게 주었다. / *아빠가 용돈을 주었다.

㉣ 겨우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야? / 하나를 겨우 만들었다는 거야?

㉤ 경제 및 문화가 발달해야 선진국이다. / *경제 문화가 뭇 발달해야 선진국이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을 보니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 중에는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가 있군.
- ② ㉡을 보니 부정의 의미를 갖는 부사어는 수식하는 문장 성분 앞으로 위치가 고정되는군.
- ③ ㉢을 보니 서술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 되기도 하군.
- ④ ㉣을 보니 체언을 꾸며주던 부사어가 위치를 이동하면 수식하는 성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군.
- ⑤ ㉤을 보니 단어를 이어주는 부사어는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군.

14. 다음은 높임 표현과 관련된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다음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자.

우리말의 높임법은 높이는 대상에 따라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면 주체 높임, 청자를 높이면 상대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면 객체 높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임법은 조사, 특수 어휘,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등에 의해 실현됩니다.

질문: 제시된 문장에 실현된 높임 표현에 대해 탐구해 보자.

㉠ 아버지, 할머니께 선물 드리겠어요?

㉡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녁을 드시러 나가셨습니다.

㉢ 삼촌,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 ① ㉠에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가 있다.
- ② ㉡에서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 ③ ㉠과 ㉡에서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 ④ ㉠과 ㉢에는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가 있다.
- ⑤ ㉡과 ㉢에는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

1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를 분류하고자 한다.

㉠~㉣이 사용된 용언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 대등적 연결 어미와 ㉡ 종속적 연결 어미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고, ㉢ 보조적 연결 어미는 본용언에 보조 용언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때, 대등적 연결 어미는 두 문장을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로 이어 주고, 종속적 연결 어미는 앞의 문장이 뒤의 문장의 '배경', '원인', '조건', '양보', '결과', '목적' 등의 의미를 가지도록 이어 준다.

<보기 2>

선생님: 안녕? 일찍 등교했구나.

학생: 네. 달리기 ㉠ 연습하려고 일찍 왔어요. 체육 대회에 ㉡ 출전하게 됐거든요.

선생님: 그래? 그러면 기록을 확인할 수 ㉢ 있게 내가 좀 도와줄까?

학생: 정말요? 안 그래도 기록 측정을 해 줄 사람이 없어서 ㉣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긴. 너처럼 ㉤ 연습하고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럼 초시계 가져올 테니, 잠깐 기다려.

- | | | | |
|---|---|------|------|
| | ㉠ | ㉡ | ㉢ |
| ① | b | a, c | c, d |
| ② | d | a, c | b, c |
| ③ | d | b, c | a, c |
| ④ | c | a, c | b, d |
| ⑤ | c | c, d | a, b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이후 등장한 바로크 미술은, 이상적이고 안정감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던 르네상스 미술과는 달리 사실적이고 극적인 면을 추구하여 정적인 미술에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이러한 바로크 미술을 이끌었던 독창적인 화가가 바로 카라바지오였다.

그는 종래의 이상화된 인간상을 거부하고 세속적이고 현실감 넘치는 인물 유형을 창조하여 사실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종교화를 그릴 때에도 성자들을 보통 사람처럼 묘사하면서 신성한 장면을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난 듯이 그렸다. 당시 매우 혁신적이었던 그의 시도는 그림에서 이상화된 성자의 모습을 만나기를 원했던 대중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 평생 떠돌며 설교를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소박한 의복을 입은 범인(凡人)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또한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림을 그릴 때 하나의 장면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하였다. 사도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 놀라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 <엠마오의 저녁 식사>에는 뒤로 밀려난 의자와 놀라서 크게 벌린 팔, 테이블 밖으로 떨어질 듯한 과일 접시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림의 이야기 속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는 '강렬한 빛'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테너브리즘'이라는 명암대조법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빛과 어두움을 대비시

켜 공간의 깊이감과 인물의 양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었다. 이는 선 원근법*보다 더욱 진일보한, 공간을 회화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방식은 보는 이를 그림 속의 사건으로 끌어들이며,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통해 감정적인 효과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였다. 즉 감상자로 하여금 어두운 무대에 한 줄기 강렬한 조명이 비치는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긴장감과 감동을 느끼게 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빛이 가지고 있는 밝음의 속성을 살려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카라바지오의 현실을 바라보는 사실주의의 전통과 그가 창안한 빛과 어두움의 강렬한 대비에 의한 효과는 훗날 루벤스, 램브란트에게 영향을 주어 새로운 화풍을 낳는 창조적 자극이 되었다.

* 양감: 대상물의 부피나 무게에 대한 느낌.

* 선 원근법: 한 점을 향해 뻗어 나간 선들에 의해 사물들이 뒤로 물러선 듯한 시각적 효과를 주는 방법.

1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로크 미술은 회화에서 극적인 효과를 추구한다.
- ② 르네상스 미술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 ③ 빛과 어두움을 대비하는 카라바지오의 기법은 새로운 화풍을 창조하는 기반이 되었다.
- ④ 카라바지오는 공간을 회화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을 착안해 내어 선 원근법에 기초를 마련했다.
- ⑤ 테너브리즘은 인물의 양감과 공간의 깊이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마태오의 소명」은 화려한 복장의 일행과 함께 선술집 탁자의 맨 왼쪽에 앉고 고개 숙여 무언가에 몰두하던 마태오와, 그 반대편에 서서 손을 들어 마태오를 부르고 있는 범인(凡人) 복장의 예수 일행이 만나는 순간을 묘사한 작품이다.

- ① 예수 일행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린 것은 당시 대중들에게 거부감을 불러 일으켰겠군.
- ② 예수 일행의 머리 위로 흘러드는 강렬한 빛은 예수의 권위와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작가의 의도였겠군.
- ③ 앉아 있는 마태오의 일행과 서 있는 예수 일행의 모습을 통해 안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 하였겠군.
- ④ 벽면에 사선으로 흐르는 빛과 그 빛이 가르는 어두운 공간의 대비는 감상자에게 강렬함과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군.
- ⑤ 마태오 일행의 모자 위 장식, 다리에 비스듬히 걸쳐진 칼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는 감상자에게 실제 현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겠군.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체내에서 철(Fe)은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 근육 세포 내에서 산소를 저장하는 미오글로빈의 필수 성분이다. 이처럼 철은 체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질로 인체는 철의 양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런데 체내에 있는 철은 장이나 피부 등의 세포가 그 기능을 다할 때 함께 소실되므로, 매일 식사를 통해 일정량의 철을 흡수해야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이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철은 크게 헴철과 비헴철로 나눌 수 있다. 헴철은 ① 2가(Fe^{2+}) 철 이온이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며, 동물성 음식을 통해 섭취된다. 이에 비해 비헴철은 ② 3가(Fe^{3+}) 철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며 식물성 음식을 통해 섭취된다. 헴철과 비헴철은 모두 십이지장에서 흡수된 후 혈장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세포로 전달되는데, 이때 십이지장은 2가 철 이온의 형태로만 철 이온을 흡수한다. 따라서 헴철은 그 자체로 흡수가 가능하지만 비헴철인 3가 철 이온은 반드시 2가 철 이온의 형태로 바뀌어야 흡수될 수 있다. 그렇다면 비헴철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십이지장에서 흡수될까?

비헴철 즉, 3가 철 이온이 십이지장 상부에 도달하면, 십이지장의 상피에 존재하는 철 환원 효소의 작용으로 전자 하나를 얻어 2가 철 이온이 된다. 이때 2가 철 이온은 십이지장 내로 흡수된 후 페리틴이라는 물질의 형태로 저장되거나, 특정 단백질 통로를 통해 십이지장을 통과하여 혈장 내로 이동한다. 그런데 혈장으로 이동한 철 이온의 경우 전자 하나를 잃어 다시 3가 철 이온으로 산화된다. 그 이유는 철 이온이 세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페린이라는 운반 물질과 결합해야 하는데, 이 트랜스페린에는 3가 철 이온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혈장으로 이동한 철 이온은 어떤 과정을 통해 세포로 흡수되는 것일까? 혈장에서 철 이온은 트랜스페린과 결합하여 필요한 세포로 이동한다. 그런데 철 이온이 체내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트랜스페린과 철 이온의 결합이 분리되어야 한다. 이 결합은 pH가 약산성(5.5)일 때에만 분리되는데, 세포질 내의 pH는 이보다 높은 약 6.8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포질에 엔도솜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결합을 분리시킨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가 철 이온과 결합한 트랜스페린은 복합체를 형성하여 혈장을 순환하다가, 철 이온을 필요로 하는 세포의 표면에 있는 트랜스페린 수용체와 결합한다. 이 결합이 신호가 되어 세포 내로 이입이 일어나 엔도솜을 형성하게 된다. 엔도솜이 형성되면 엔도솜 막에 존재하는 막관통 단백질은 자신을 통로로 하여 세포질 안의 수소 이온을 엔도솜 안으로 유입시킨다. 이로 인해 엔도솜 내의 pH가 약산성이 되면 트랜스페린과 철 이온은 분리된다. 이렇게 분리된 철 이온은 단백질 통로인 DMT1을 통해 엔도솜 밖의 세포질로 방출되어 세포 내에서 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철 이온이 트랜스페린과 분리되면 엔도솜은 사라지게 되어 트랜스페린은 혈장으로 방출되고, 트랜스페린 수용체는 세포막 표면으로 이동함으로써 철의 흡수 및 이동에 다시 관여한다.

* 헴: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등을 구성하는 철이 결합된 고리 구조.
* 엔도솜: 진핵세포 내부에 막으로 결합된 공간이나 구조를 말함.

18. 밑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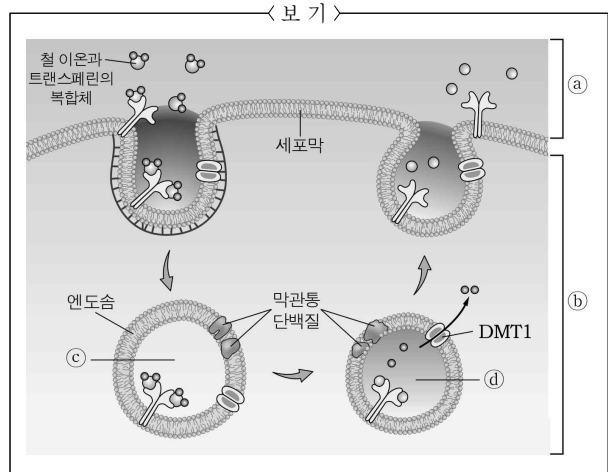
- ① 철 이온의 흡수 경로
- 헴철의 이동을 중심으로
- ② 철의 평형 상태 조절 방법
- 철 이온의 산화를 중심으로
- ③ 철의 평형 상태 지속 조건
- 엔도솜의 분포를 중심으로
- ④ 철의 평형 상태 유지 원리
- 철 이온의 흡수 과정을 중심으로
- ⑤ 철 이온의 결합과 분리 과정
- 엔도솜의 역할을 중심으로

1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매일 일정량이 소실된다.
- ② ㉠은 ㉡과 달리 십이지장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고 흡수된다.
- ③ ㉡은 ㉠과 달리 특수한 통로를 통해 혈장으로 이동한다.
- ④ ㉡은 ㉠과 달리 체내에서 흡수된 후 이동하지 않고 저장된다.
- ⑤ ㉠과 ㉡은 모두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20. <보기>는 [A]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 엔도솜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의 철 이온과 트랜스페린의 복합체가 세포막의 트랜스페린 수용체와 결합해야 한다.
- ② ㉡에 엔도솜이 형성되면, ㉡의 수소 이온은 ㉢로 이동할 것이다.
- ③ ㉢에서와 달리 ㉣에서 철 이온이 트랜스페린과 분리되는 것은 ㉡와 ㉣의 pH 차이 때문이다.
- ④ ㉣의 철 이온이 ㉡로 이동하면, 트랜스페린 수용체와 트랜스페린은 각각 ㉠과 ㉡로 이동한다.
- ⑤ ㉡의 수소 이온과 ㉣의 철 이온은 서로 다른 단백질 통로를 거쳐 각각 ㉢과 ㉡로 이동한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높은 연봉에 관한 기사를 보고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같은 종목의 다른 선수들에 비해 이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수입의 차이는 다른 직종의 구성원 사이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적 지대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지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공급곡선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은 한 노동자의 노동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노동공급곡선이란 임금에 따라 노동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노동량을 표시한 곡선을 의미한다. 이 곡선에서 균형임금*이 W_0 라고 할 때, L_0 만큼의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고 노동자의 총수입은 $L_0 \times W_0$ 로, A와 B를 합한 면적이 된다. 이때 A는

<그림> 노동자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수입으로 이를 전용수입(轉用收入)이라고 한다. 그리고 B는 총수입 중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노동자가 추가적인 수입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며, 이를 경제적 지대(經濟的地代)라고 한다.

노동자가 노동 공급으로 얻는 수입 중에서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노동 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 공급의 임금탄력성은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일수록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가 작다. 일반적으로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왜냐하면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자는 노동 공급의 양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희소해지고 경제적 지대가 커진다.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높은 소득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으로 노동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어서 그 희소성으로 인해 높은 소득의 대부분을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게 된다.

이에 반해 노동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공급이 많이 증가하므로 희소성이 없어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다. 노동공급곡선의 기울기와 노동 공급의 임금탄력성은 서로 반비례하는데 극단적으로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는 '완전 탄력적인 경우'로 노동 공급에 희소성이 전혀 없어 이때 경제적 지대는 0이 되고 소득은 전부 전용수입이 된다. 반대로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인 경우는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로 노동 공급이 고정되어 희소성이 가장 커지므로 소득은 전부 경제적 지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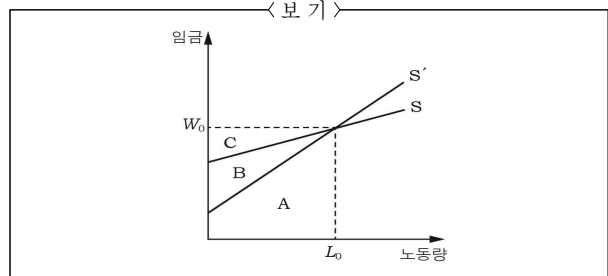
한편,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경제적 지대를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동 공급을 제한하여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활동을 '지대추구행위'라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진입장벽을 높여 타 집단과의 자유경쟁을 억압하고 시장 전체의 비효율성을 ㉠ 부른다. 지대추구행위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진입장벽의 철폐, 각종 기득권의 해체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지대의 철폐라고 볼 수 있다.

* 균형임금: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의 임금.

21.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전용수입의 개념은 무엇일까?
- ② 노동 공급이 탄력적인 직종에는 무엇이 있을까?
- ③ 지대추구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 ④ 경제적 지대가 없다면 노동공급곡선은 어떤 모양일까?
- ⑤ 노동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일 때 경제적 지대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어떻게 될까?

2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두 공급곡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S에 비해 S'는 임금이 오르면 노동 공급의 증가량이 더 커진다.
- ② S에 비해 S'는 노동 공급에 희소성이 있어 경제적 지대가 더 크다.
- ③ S'에 비해 S는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 ④ 균형임금이 W_0 일 때 S와 S'의 총수입은 각각 $A+B+C$ 로 같다.
- ⑤ 균형임금이 W_0 일 때 S의 전용수입은 $A+B$ 이고, S'의 전용수입은 A에 해당된다.

23. 밑글을 읽고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A는 광고를 계약하면서 출연료가 300만 원이면 계약을 하고, 그 이하면 계약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광고회사는 A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5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 B는 유명한 동료들과 회사를 만들고 서로 출연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희소성을 높여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한다.

- ① A는 전용수입이 추가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광고 계약을 하게 되겠군.
- ② A의 광고 계약 수입 중 200만 원은 전용수입이고, 300만 원은 경제적 지대에 해당하는군.
- ③ B가 동료들과 서로 출연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지대의 철폐라고 볼 수 있군.
- ④ B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공급곡선을 비탄력적으로 만들고자 하는군.
- ⑤ B가 희소성을 높이는 것은 진입장벽을 높이는 활동으로 전용수입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군.

24.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라.
- ② 저 멀리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 ③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르기 마련이다.
- ④ 우리는 체육대회에서 신나게 응원가를 불렀다.
- ⑤ 그 가게에서는 값을 비싸게 불러 거래하지 않는다.

[25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인간은 시간을 원환적(圓環的)으로 표상하기도 하고 직선적으로도 표상하는데, 전자를 ㉠ ‘크로노스적 시간’이라 하고 후자를 ㉡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부른다. 시간에 대한 표상은 인간의 삶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이 주로 자연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 시간은 천체의 원운동과 함께 흐르는 것으로 간주되고 인간은 이런 주기적인 흐름에 맞추어 삶을 영위한다. 즉 시간은 천체의 순환과 함께 원환적으로 표상된다. 반면 인간이 주로 역사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 시간은 직선적으로 표상된다. 역사의 흐름은 일회적이다. 물론 역사적 사건의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역사의 순환성을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역사적 사건 자체는 한 번 지나가면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시간 표상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흔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대비에서 본다. 볼트만이 고대 그리스에서 삶을 기술하는 방식과 고대 이스라엘에서 삶을 기술하는 방식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이 차이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볼트만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서 인간의 삶은 전적으로 자연에 근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이 삶을 기술하는 방식은 삶의 영역을 자연의 영역으로 이해하려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투키디데스는 인간의 삶의 방식에도 자연에서와 같은 내재적 법칙이 있어서 인간적 사건은 자연적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즉 그리스에서 삶을 기술하는 방식에는 신의 의지를 지향하는 인간의 삶과 목표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그 속에는 특정 방향과 목표를 전제하지 않은, 자연의 순환을 바탕으로 하는 원환적 시간 표상이 반영되어 있다.

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삶을 기술하는 방식은 인간의 행위를 신의 계명에 대한 경외와 복종으로서 이해하려는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의 삶은 신의 섭리로 진행된다. 신의 계명을 따르는 인간 삶의 과정은 모든 것이 하나의 의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간의 삶을 이끄는 시간이 직선적으로 표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직선적 시간 표상은 시간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신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삶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그 삶이 끝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삶은 최후의 심판과 심판 이후의 영원한 삶을 목표로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시간 표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가 바뀌어 새해가 되어도 새해의 절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순환하면서 되돌아온다. 그러나 그 새해는 지난해와 다를 것이며 이는 시간의 단절적 계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순환적 자연 속에서 직선적 역사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25.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개념의 핵심 이론을 소개하며, 그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 ② 특정 개념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특정 개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④ 특정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를 통합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특정 개념의 통시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있다.

26.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시간의 표상에 대한 개념이다.
- ② ㉠과 ㉡은 모두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한다.
- ③ ㉠과 달리 ㉡은 삶의 종말 이후의 영원한 삶을 전제한다.
- ④ ㉠과 달리 ㉠은 주기적인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다.
- ⑤ ㉠과 달리 ㉠은 자연보다 역사를 더 중시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27. 윗글의 볼트만이 <보기>의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플라톤의 시간은 가시적인 천체 운동을 통해 지각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결코 추상적인 시간이 아니다. 천체의 규칙적 순환 운동은 시간을 재는 도구이다. 또 플라톤이 천체의 운동은 예지적이고 규칙적이라고 한 것은 시간 지각이 이성적 인식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① 신의 섭리에 의해 예지되는 시간을 중시하고 있군.
- ② 자연의 흐름과 천체 운동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군.
- ③ 천체 운동의 규칙성을 직선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군.
- ④ 헤브라이즘과 유사하게 가시적인 시간 지각을 전제하고 있군.
- ⑤ 특정한 목표를 전제하지 않은 원환적 시간 표상을 드러내고 있군.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경과 카메라의 렌즈, 스마트폰의 터치 화면 등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십 겹의 박막*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박막은 눈의 보호, 지문 방지, 반사 방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박막을 형성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진공 증착 기술이다. 진공 증착 기술은 진공 상태에서 금속을 가열·증발시켜 발생된 기체 분자를 물체 표면에 얇은 막으로 입히는 것인데, ㉠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공 펌프로 용기 내의 공기를 용기 밖으로 배출하여 용기 내의 기압이 외부의 대기압보다 낮은 진공 상태를 만든다. 용기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이유는 금속이 증발할 때 용기 내 공기에 있는 다른 물질들과 충돌하면 증발된 기체 분자가 박막을 형성할 기관 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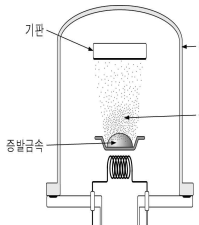
다음으로 진공 용기 안 아랫부분에는 증발시킬 재료인 증발 금속을 설치하고 윗부분에는 박막이 형성될 고체 기관을 장착한다. 증발 금속을 전기적 저항이나 전 자빔 등으로 가열하면, 증발 금속의 분자가 기체 분자가 되어 진공 공간으로 튀어나가게 된다. 이때의 에너지만으로 기관까지 직진하며 날아간다. 일반적으로 가열 온도가 높으면 튀어나가는 에너지는 변하지 않지만 튀어나가는 분자 수는 많아진다. 튀어나가는 분자 수가 많다는 것은 증발하는 기체가 많다는 것이며, 증발하는 기체가 많을수록 증착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물질마다 증발하는 기체 분자량이 최대로 측정되는 가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물질에 따른 증착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기관까지 날아간 기체 분자들은 기관 표면에 흡착하게 된다. 기관 내부에 들어 있는 원자는 상하좌우 모든 방향으로 대칭이어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안정된 상태이지만, 기관 표면에 있는 원자는 아래쪽에 결합할 원자가 없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불안정한 상태인 기관 표면에 있는 원자는 기체 분자와 결합하여 안정화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 표면에 기체 분자가 달라 붙는 현상인 흡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안정적으로 흡착이 이루어지려면 기관의 온도가 중요하다. 기관의 온도가 기체 분자의 온도보다 높으면 흡착된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기관 표면의 원자들이 안정화하려는 힘보다 커져 기관 표면에서 쉽게 탈착*하게 된다. 이때 탈착되지 않고 기관 표면에 흡착된 기체 분자는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의 일부를 열로 방출하는데 이를 흡착열이라고 한다. 흡착된 분자가 많으면 흡착열이 커지기 때문에 흡착열의 크기는 흡착 세기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기체 상태로 흡착된 분자들이 고체화되는 증착을 통해 기관의 박막이 형성된다.

증발된 기체 분자는 직진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입체적 모양을 가진 기관의 구석이나 뒷면에는 증착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을 회전시키거나 증발 금속의 위치를 다양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박막: 표면적에 비해 두께가 아주 얇은 막.

*탈착: 흡착된 물질이 고체 표면으로부터 떨어지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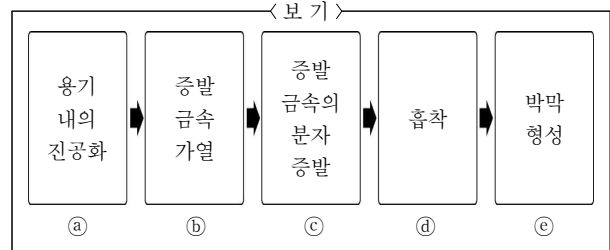


한다. 증발 금속을 전기적 저항이나 전 자빔 등으로 가열하면, 증발 금속의 분자가 기체 분자가 되어 진공 공간으로 튀어나가게 된다. 이때의 에너지만으로 기관까지 직진하며 날아간다. 일반적으로 가열 온도가 높으면 튀어나가는 에너지는 변하지 않지만 튀어나가는 분자 수는 많아진다. 튀어나가는 분자 수가 많다는 것은 증발하는 기체가 많다는 것이며, 증발하는 기체가 많을수록 증착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물질마다 증발하는 기체 분자량이 최대로 측정되는 가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물질에 따른 증착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2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관 표면에 여러 겹의 박막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증발 금속의 분자가 기체화되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하다.
- ③ 기관 내부의 불균형한 상태가 기체 분자의 증착을 촉진한다.
- ④ 흡착된 기체 분자가 방출한 열의 크기는 흡착 세기를 나타낸다.
- ⑤ 용기 내에서 증발된 기체 분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한다.

29. <보기>는 ㉠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단계에서 용기 내의 기압은 d 단계에서 기관에 도달하는 기체 분자의 수에 영향을 주는군.
- ② b 단계에서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c 단계에서 분자들이 튀어나가는 에너지는 높아지겠군.
- ③ c 단계에서 증발되는 기체 분자가 많을수록 e 단계에서 증착 속도가 빨라지겠군.
- ④ d 단계에서의 기체 분자들은 e 단계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되는군.
- ⑤ d 단계에서 기관 표면의 원자는 c 단계에서 증발된 기체 분자와 결합하여 안정화하려고 하는군.

30.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와 같이 반응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진공 증착을 하기 위해 증발시킨 기체 분자가 기관에(에서) (㉠)되었다면, 기관의 온도가 박막을 형성하려는 기체 분자의 온도보다 (㉡),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기관 표면의 원자가 안정화되려는 힘보다 (㉢)는 것이다.

- | | | | |
|---|----|-----|------|
| | ㉠ | ㉡ | ㉢ |
| ① | 탈착 | 낮아서 | 커졌다 |
| ② | 탈착 | 낮아서 | 작아졌다 |
| ③ | 탈착 | 높아서 | 커졌다 |
| ④ | 흡착 | 높아서 | 작아졌다 |
| ⑤ | 흡착 | 낮아서 | 커졌다 |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마음은 한 폭의 기(旗)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
없는 것 모양 ㉠ 걸려 왔더니라.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눈 오는 네거리에 ㉡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이며,
마음의 기(旗)는
눈의 음악이나 ㉢ 들고 있는가.

나에게 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日沒)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 가는
㉣ 그 일이란다.

황제의 향서(降書)*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悲哀)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 없을까.

내 마음은
한 폭의 기(旗)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서
때로 울고
때로 기도 드린다.

- 김남조, 「정념(情念)의 기(旗)」 -

* 향서(降書): 항복의 뜻을 적어 상대방에게 보내는 글.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구체적 사물에 빗대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예찬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구도적 자세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과거의 모습이 지속되어 왔다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② ㉡에는 직면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화자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변화된 상황을 수용해야 하는 화자의 체념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이루고자 하는 모습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다.
- ⑤ ㉤에는 대상과 마주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고독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시인은 먼저 고독의 시간이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시간임을 보여 준다. 동시에 그 시간이 자신의 내면 속 번민을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내면의 성숙에 다가가기로 노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① 1연: '보는 이 없는'과 '없는 것 모양'을 관련지어 볼 때, 고독의 시간이 무관심과 외로움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군.
- ② 2연: '혼란과 열기'는 고독의 시간 속에서 바라본 내면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3연: '눈길 위'에서 '편안한 그늘'을 맞이하는 것은 번민이 성숙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5연: '무거운 비애(悲哀)'를 넘어선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고독의 시간을 자신의 내적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한 대상으로 볼 수 있군.
- ⑤ 7연: '시공(時空)'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드리는 것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내적 성숙을 이루어 내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는 행위로 볼 수 있군.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소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1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세사(世事)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4수>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
죽정송함(竹庭松檻)*에 ㉡ 티끌 한 점도 없으니
거문고 하나 만권의 서책이 더욱 산뜻하고 깨끗하구나 <11수>

제월(霽月)*이 구름 뚫고 술 끝에 날아 올라
십분(十分) 청광(淸光)이 푸른 시내 가운데에 비졌거늘
어디 있는 무리 잃은 갈매기는 나를 조차 오느냐 <12수>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보는 뜻은
세월이 빨리 가니 백세(百歲)인들 얼마 동안이라
십 년 전 진세일념(塵世一念)*이 얼음 녹듯 한다 <19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 죽정송함(竹庭松檻): 대나무가 서 있는 뜰에 소나무로 만든 난간.

* 제월(霽月): 비가 갠 후 뜬 달.

* 진세일념(塵世一念): 속세에 대한 마음.

34. 밑줄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대구 형식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5.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이며, ㉡은 화자가 시기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추구하려는 대상이며, ㉡은 화자가 떨쳐 버리려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의 삶이 투영된 대상이며, ㉡은 화자의 감흥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외면하고자 하는 대상이며, ㉡은 화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며, ㉡은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대상이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유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던 작가가 자연에 은거하면서 갖게 된 심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면서도 때때로 정치에의 참여 욕구로 인해 번민하는 작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서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 ① <1수>에서 '충효'를 하지 않으면 '금수(禽獸)'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교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 ② <3수>에서 '세사(世事)'에 연연하지 않고 '임천(林泉)'에서의 삶을 선택하려 하는 것은 자연에 은거하려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 ③ <4수>에서 갈 곳을 몰라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자연과 현실 참여 사이에서 고민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 ④ <11수>에서 '만권의 서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치 현실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 ⑤ <19수>에서 '강물'을 보며 '얼음 녹듯' 속세에 대한 미련을 떨치는 모습은 번민에서 벗어난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우리 집 닭을 서리하자는 세종이의 제안에 동의한다. 몇 달 전 읍내에서 은행 살인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마을에는 현상금 벽보가 붙게 된다. 그런데 강도의 인상착의가 실종된 삼촌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얼룩무늬 옷을 입은 사람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현상금을 타기 위해 우리 집을 감시하고, 이로 인해 아버지는 불만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세종이가 아버지가 우리집을 찾아온 것은 바로 다음날이었다. 눈썹이 긴 얼굴로 그는 기웃기웃 우리집으로 들어섰다. 아버지와 나는 시래기를 엮어 뒷벽에 매달고 있었다. 그는 주독이 든 컵등을 문지르며 아버지와 내가 시래기 엮는 모습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다.

“그놈이 살아 있긴 있는 모양이죠.”

“누가?”

“야 삼촌 말요.”

아버지는 짚을 들었던 손을 놓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에 담배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엔 죽었어. 그것도 오래 전일세.”

“아저씨도 뭘 말을 그렇게 하슈. 작년 추석엔가 내가 동철인 죽었나 보쥬. 올해도 안 오는 걸 보니 하니께 꺾쩍 댄 게 바로 아저씨덱쇼.”

“죽었다면 죽은 줄 알어!”

“거 이상하네요. 내가 죽은개비요 할 땐 살았다더니, 내가 살았는데가 싶더니 이젠 죽었다니 윈.”

“허튼 수작 말고 가 봐!”

“앗따 아저씨두. 내가 다 알지요. 아저씨 동생 찢러 넣고 현상금 혼자 타 먹올라 그러는 거지요? 인심이 그래서야 쓰쥬.”

“네 이놈! 태종이 이놈!”

아버지가 집어 던지는 무 시래기를 맞으며 세종이가 아버지는 도망쳐 갔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소리쳤다.

“뭇 씨요! 아무리 그렇기로 동생을 찢러넣어요!”

세종이가 아버지 태종이는 우리들에게도 태종이었다. 그는 어른이 아니었다. 그가 아버지에게 큰소리를 치다니. 아버지가 태종이에게 집어던져서 흐트러진 시래기를 주워 모으며 나는 자꾸만 입술을 깨물었다. 하던 일을 버려둔 채 아버지는 횡하니 삼쥬를 빠져나갔다. 저녁 어스름이 깔리고 있는 빈 들판을 걸으며 나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많던 메뚜기들도 보이지 않았다. 메뚜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어느새 얼어 죽은 것일까. 어둠이 내리면서 마을에는 하나둘 불이 켜졌다. 대추나무 뒤쪽으로 보이는 우리집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집을 바라보며 나는 자꾸만 고개를 저었다. 배가 고팠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 캄캄하게 어두운 빈 들판을 걸으며 나는 눈물을 참느라고 자꾸만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는 밤마다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그릇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던 밤에 아버지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어느놈이여, 어느 놈이냐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 앞으로 나는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고함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마을에서는 팔려가고 남은 아직 살도 제대로 오르지 않은 개들이 짖어대곤 했다. 두런 두런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면 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삼쥬를 뛰쳐 나갔다. 제사를 지내고 밤늦게 돌아오던 사람들을 때릴 뻔

한 일도 생겼다.

“니네 아버지는 잠을 안 잔다면서.”

들깨가 코를 벌름거리며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녀석의 깨를 뿌린 것 같은 **얼굴을 피가 흐르게 쥐어뜯었다**. 이제 나는 아이들 과도 떨어져서 혼자 마을회관 옆길로 빠져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따금 ㉠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는 그때마다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묶여서 끌려가고 있었다. 때로는 삼촌이 아버지를 끌고 가기도 했다. 삼촌은 토마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금이 가고 헐어빠진 시멘트로 된 삼촌은 코가 깨진 얼굴로 다리를 절름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오른손은 언제나 토마스와 똑같이 두툽한 권총을 힘차게 허리에 쥐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달빛은 여전히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닭이 울었다. 마을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걸음을 늦추었다. 나는 아버지가 깨어 있기를 바라며 집쪽을 바라보았다. 이제 아버지는 도둑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중략)

날개를 퍼들쩍거리며 잠에서 깬 닭이 몸을 뜨는 순간 내 오른손은 그의 목을 정확하게 틀어잡았다. 목직한 닭이 내 손에 들어오는 사이 닭들이 다시 꾸룩거리기 시작했다. 닭은 다리를 버둥거리며 목을 쥔 내 손을 할켜댔다. 오른손에 더욱더 힘을 가하면서 나는 세종이에게 그 닭을 내밀었다. 세종이는 벌리고 있던 노끈으로 닭의 목을 묶기 시작했다. 세종이의 노끈으로 날개와 목이 묶인 닭은 그의 손을 거쳐 닭장 밖의 아이에게 전해졌고, 자루를 들고 있던 아이는 그놈을 받아 자루에 집어넣었다. 이제 나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그가 뛰어나오며 도둑들을 향해 소리치기를 기다리면 되었다. 나는 처음부터 두 마리의 닭을 훔칠 생각은 아니었다.

“빨리 해.”

세종이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닭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곤 맨 끝에 있는 닭의 몸통을 손바닥에 확인한 다음 있는 힘을 다해서 **닭들을 해의 안쪽으로 밀어붙였다**. 닭이 떨어지는 소리, 떨어진 닭들이 놀라 꼬이악꼬이악 질러대는 소리. 한 순간에 닭장 안은 수라장이 되었다. 놀란 닭들이 위쪽 해에서도 떨어져 내 목덜미를 때렸다. 아이들이 달아나고 있었다. 번들거리는 달빛 속으로 나는 닭이 든 자루를 내던지며 달아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삽작을 빠져나간 아이들이 대추나무 아래로 사라져가는 발소리가 얼어붙은 고요를 깨며 들려왔다. 아버지가 뛰어나온 것은 그때였다. 닭들은 아직도 소란스레 울어대고 있었다. 몽둥이를 든 아버지가 활짝 열려진 삽작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을 받으며 달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닭장을 빠져나왔다. 아버지의 고향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이놈 새끼들아! 동네 노무새끼들은 다 나와! 아주 우리 집에서 살아라 이놈들아. 살라구. 살란 말이다!”

순간, 나는 아랫도리가 뜨거워졌다. 나는 선 채로 오줌을 누고 있었다. 내복을 적시며 흘러내린 **뜨거운 오줌**이 허벅지를 타고 내려가 발목으로 스며들었다. 양말이 척척해졌다.

대추나무가 있는 언덕에 서서 아버지는 여전히 몽둥이를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닭장에서는 아직도 놀란 닭들이 울어대는 외마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이들이 달려갈 저 멀고먼 토마스 다리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이 얼룩무늬의 사내도 동네의

그 누구도 아니라 도둑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 수 있도록 더 크게 닭들이 울어대기를 바랐다. 푸른빛으로 번들거리는 달빛 속에서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는 아버지를 나는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만 턱을 떨면서 서 있었다. 척척해진 바지가 차츰 차가와져서 그것이 살에 닿지 않도록 엉겨주춤 선 채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닭의 울음소리보다도 점점 더 작아지는 착각에 빠져들어갔다.

마을에서 일제히 개가 짖어대기 시작했다.

- 한수산, 「밤길」 -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장면 묘사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고 있다.
- ③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사건 전개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현학적인 표현을 통해 사건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의 ‘나’는 아이의 입장에서 ‘어른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때 ‘어른의 세계’란 물질 중심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점차 유대감이 사라져가는 농촌 공동체를 말하는데, 현상금으로부터 촉발된 집단적·물질적 욕망은 사생활 침해와 같은 억압과 폭력의 양상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나’의 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결국 ‘나’는 ‘아이의 세계’에서 장난처럼 행해지는 ‘서리’를 통해 ‘어른의 세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당혹감을 느낀다.

- ① ‘태종이’가 우리 집에 와서 ‘허튼 수작’을 하는 것은,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한 가족을 감시하는 행위의 하나임을 알 수 있어.
- ② ‘아버지’가 ‘밤마다 소리를 질러대’거나 사소한 소리에도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초래한 정신적 고통이 표출된 것임을 알 수 있어.
- ③ ‘나’가 ‘들깨’의 ‘얼굴을 피가 흐르게 쥐어뜯’는 것은, 물질에 집착하여 유대감을 상실한 공동체 구성원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행위임을 알 수 있어.
- ④ ‘나’가 ‘닭들을 해의 안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악화되지만 하는 가족의 상황에서 ‘나’가 자기 나름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행동임을 알 수 있어.
- ⑤ ‘아버지’가 지르는 소리를 들은 직후 ‘나’가 ‘뜨거운 오줌’을 흘리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오는 ‘나’의 심리와 관련된 반응임을 알 수 있어.

3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들에 대한 ‘나’의 심리를 드러낸다.
- ② ‘나’와 관련된 인물들의 과거 사건을 제시한다.
- ③ ‘나’가 성취하고자 하는 미래의 목표를 암시한다.
- ④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나’의 의지를 표출한다.
- ⑤ ‘나’에 대해서 인물들이 지니는 태도를 보여준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호원의 딸 호월영은 최현의 아들 최희성과 혼인한다. 이후 대부 최희성은 정국공의 딸 정씨를 후처로 맞이하고, 천자의 명으로 발해도를 다스리기 위해 집을 떠난다. 그 사이 정씨는 호씨를 모해하고, 그 모해를 믿은 상서 최현은 호씨를 천자에게 상소하여 죄를 묻고자 한다.

각설. 대부가 춘이월에 길을 떠나 오월 초생에 발해도(渤海島)에 미쳐, 받은 명(命)을 전하고 국사를 안전한 후 두루 순행하여 회환하더니, 원로에 피곤하여 잠깐 졸매 일몽을 얻으니, 호씨가 머리를 풀고 발 벗고 어린 자식을 데리고 대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거늘, 대부가 반겨 서로 정회를 풀고자 하더니, 호씨가 눈물을 흘려 말하기를,

“가군(家君)은 빨리 돌아와 첩의 잔명(殘命)을 구하소서.”

말을 끝내고 엎어져 인사를 모르거늘, 대부가 대경하여 연고를 묻고자 하더니, 문득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마음에 기쁘지 아니하여 행장을 재촉하여 오더라.

차설. 상서가 호씨의 생산함을 알고 호씨의 죄목을 갖추어 천자에게 상달하니, 상이 들으시고 노하사 호씨를 결박하여 계단 아래에 꿇리고 문죄하실새, 호씨가 안색을 불변하고 머리를 조아려 죽임을 원하거늘, 보는 자가 뉘 아니 참혹하게 여기지 아니하리오. 상이 보시고 애처롭고 불쌍해 차마 보기 어려워 하교하여 말하기를,

“음란한 계집이 감히 집안에 불의를 행하여 강상지죄(綱常之罪)*를 지었으니, 너는 일찍 봉초(捧招)*하여 국법을 밝히리라.”

하신대, 호씨가 머리를 조아려 다시 절하며 말하기를,

“신첩은 대장군 호랑의 손녀이요, 상서 호원의 딸이요, 어미는 경국 장녀 조랑의 손녀이옵더니, 첩의 아버지와 상서 최현이 지기지우(知己之友)라. 첩이 어려서 최현의 아들과 더불어 결혼하옵고, 삼 년 후 아버지가 참화를 만나 장하(杖下)에 죽사오니, 어미 또한 아버지의 뒤를 좇아 죽어 선산에 안장하옵고, 비복과 더불어 삼 년을 의지하여 지내오며 부모의 고혼을 위로하옵더니, 본도 자사 위현이 여자여차하옵거늘 첩이 이리이리하여 두 번을 속이옵고, 변복하여 임안 옛터를 찾아가옵더니 마침 경여사의 집에 다다라 그 부인이 무자(無子)하옵고 경여사가 세상을 떠나 고초(苦楚)하옵거늘, 그 부인이 첩을 거두어 양육하옵기를 친녀같이 사랑하는 두터운 은혜를 입어 머문 지 수삼 년 만에 최랑을 만나 약혼을 받들어 예로 청하옵거늘, 결혼 후 오래지 않아 골육을 끼치어 동락하오니 첩이 화락하여 안심하옵더니, 천만 의외의 사죄(死罪)를 당하여 능히 말하여 밝히지 못하여 죽기를 당하오니, 바라옵건대 성상은 옥석(玉石)을 가리소서.”

말을 끝내고 쌍루 흘러 옷깃을 적시는지라. 아뢰는 말을 들은 즉, 개개 성덕의 부인이라. 상이 하교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네 말 같을진대 어찌 음녀(淫女)라 하리오. 네 원대로 하여 내중을 본 후 국법을 행하리라.”

하시고 말하기를,

“짐이 무덕하나 삼강오륜과 국법이 원근에 퍼졌으니, 자사 위현과 경여사 집의 사환 노비를 부르라.”

하시고,

“호씨를 하옥하라.”

하시니라.

이때 자사 위현이 벼슬을 하직하고 고향에 돌아왔더니, 명관(命官)을 보고 즉시 치행(治行)하여 황성으로 올라오고, 경여사 집의 노비도 명관을 만나 또한 상경하니, 두 곳 명관이 돌아와

공손히 절하니, 천자가 전좌(殿座)하시고 자사 위현과 경여사 집의 노비를 불러 호씨의 일을 물으시니, 두 사람이 호씨의 아뢰된 말과 추호도 다름이 없더라. 이때 만조백관이 모였는지라, 상이 상서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두 사람의 말이 호씨의 정절을 일컬으니, 대해(大海) 변하여도 호씨의 행실은 변치 아니할지라. 어찌 불의를 행하리오. 경이 참언을 들었도다.”

상서가 대답지 못하여, 정국공(鄭國公)이 나아가 아뢰어 말하기를,

“전일 호원의 죄를 밝히지 못하온고로 조정을 경계치 못하옵고, 이제 또한 간교한 계집의 죄를 밝히지 못하옵시면 이로조차 천하의 법령을 세우지 못하옵고, 호씨의 참언과 간계에 속으시니 어찌 국법을 안찰하옵시며, 전후사는 호씨의 간계를 깨닫지 못하시나이까? 성상은 호씨를 베어 후일 음녀(淫行女)를 경계하옵소서.”

이 사람은 황후의 부친이라. 상이 국공의 말을 인하여 좌우 무사로 하여금,

“호씨를 베어 서문에 달아 세상 음행 여자를 징계하리라.”

하시니, 무사 일시에 달려들어 호씨를 잡아내어 올새, 이때를 당하여 혼백이 아득하여 앙천통곡하니, 산천초목이라도 슬퍼하겠더라.

장차 서문 밖에 나아갈새, 전후의 창검이 서리 깔고 갖은 취타와 북소리는 우레 같아 사람의 명을 재촉하니, 호씨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말하기를,

“유유창천(悠悠蒼天)은 밝히 살피소서.”

북소리 두 번 나고 세 번 나기를 고대하더니, 북소리 세 번 나매 문득 대풍(大風)이 일어나고 천색(天色)이 어두우며 크게 눈과 비가 날려오는지라. 천지가 암흑하여 지척을 분별치 못하고, 정신이 아득하여 군신이 모두 놀라고 천자 또한 놀라사

“호씨 죽임을 그치라.”

하시더니, 이윽고 남쪽 땅으로써 향풍(香風)이 일어나며 한 선관(仙官)이 표연히 천자 앞에 나와 말하기를,

“나는 상제께 명을 받아 호씨를 구하러 왔노라. 호씨는 천상(天上) 옥진성(玉眞星)으로서 상제께 득죄하고 적강하였더니, 어찌 무지한 정씨와 비하리오. 정씨가 무쌍한 흥계로 시부모와 천자를 속인들 상제야 어찌 속이리오. 그대 호씨를 구하고 정씨를 죄주어 옥석을 가리면 상제께서 귀히 여기시고, 불연즉 죄를 면치 못하리라.”

상이 대경하여 하교하여,

“금당*을 차려 호씨를 모시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정씨를 결박하여 잡아와 옥석을 구별코자 할새, 정씨가 이 기별을 듣고 간계가 나타났으매 피하지 못할 줄 알고 즉시 자결하니, 슬프다! 무심한 사람을 해하려다가 도리어 양화를 입으니, 정씨가 잉태한 지 팔삭에 그 어미의 죄로 모자(母子)가 모두 죽으니, 천도 어찌 무심하리오. 천하 사람이 전과하여 정씨의 소행을 불쌍타 하는 사람이 없더라.

— 작자 미상, 「월영낭자전」 —

* 강상지죄(綱常之罪):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의 도덕을 심하게 위반한 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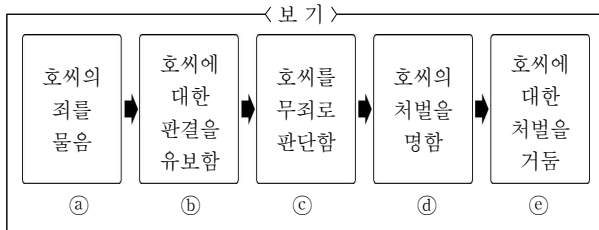
* 봉초(捧招): 죄인을 문초하여 구두로 진술을 받은 일.

* 금당: 황금으로 호화롭게 장식한 가마.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장면 전환을 알리는 상투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41. <보기>는 호씨에 대한 천자의 판결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천자는 호씨의 음란함을 죄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② b에서 천자는 호씨의 진술을 참작하여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 ③ c에서의 천자의 판단은 호씨의 진술을 입증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④ c에서의 천자의 판단이 d에서와 같이 바뀌게 된 계기는 정국공의 발언 때문이다.
- ⑤ e에서 천자는 호씨가 스스로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처벌을 거두고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후기 가정소설의 특징 중 하나는 초월계의 개입이다. 이러한 모티프는 주로 꿈으로 나타나지만 현실계에 직접 제시되기도 한다. 이는 사건 전개에 환상성을 보여주며 인물의 선악을 암시하거나, 동시에 고난 극복의 당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때 초월계의 인물은 권선징악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존재를 의미한다.

- ① 초월계의 선관이 나타날 때 보이는 자연 현상은 사건 전개에 환상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② 초월계의 선관은 호씨의 꿈에서만 아니라 호씨가 시련을 겪고 있는 현실계에 직접 등장하고 있다.
- ③ 초월계의 도움을 받아 호씨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호씨가 선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초월계의 상제는 천자에게 정씨의 처벌을 명한다는 점에서 권선징악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존재로 볼 수 있다.
- ⑤ 초월계의 선관의 말에 드러난 호씨의 고귀함은 호씨가 처한 고난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다.

4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정씨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은 ()이라 할 수 있군.”

- ① 각주구검(刻舟求劍)
- ② 사필귀정(事必歸正)
- ③ 수구초심(首丘初心)
- ④ 주마가편(走馬加鞭)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44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임 너 요즘 잔소리가 부쩍 심해졌어!
 자양 나도 그걸 느껴. 아마 나이 탓이겠지.
 기임 나이 탓이라구? 천만에! 난 너와 나이가 비슷한데 잔소리가 없잖아.
 자양 어쨌든 늙으면 잔소리가 많아져.
 기임 우리가 늙었다는 거야?
 자양 젊었다곤 할 수 없지. 인정할 건 인정하자구. 너와 나는 이젠 젊진 않아. 여자 뒤를 쫓아다니는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것이야. 이젠 조용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지.
 기임 나도 생각이 있어. 난 아무 까닭 없이 여자를 쫓아다니는 게 아냐. 빌어먹을, 이 창고 속을 보라구! 상자들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일이 지겨워 죽겠는데, 먹고 자는 생활도 이 창고 속에서 하고 있잖아! 난 늙기 전에 결혼해서 이 창고 속을 빠져나가고 싶은 거야!
 자양 일하는 것과 사는 것은 같은 거야. 그게 서로 다르면, 사랑은 불행해져.
 기임 ① 정말 고리타분한 소릴 하고 있군!
 자양 그리고 말야, 이 창고를 빠져나가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저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빛나는 우주는 거대한 창고지. 세상은 그 거대한 창고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창고이고, 우리의 이 창고는 그 조그만 창고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창고 중에 하나의 아주 작은 창고거든. 결국은 창고를 빠져나가도 또다시 창고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 누구든지 완전하게 창고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불가능해. 만약 우리가 이 창고 속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다른 창고에 들어가본들 행복할 수는 없어. 그래서 바로 이 창고, 이 창고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중간 줄거리] 기임은 다림과 사귀면서 종종 술에 취해 돌아오고, 자양은 그를 위해 북어 대가리로 해장국을 끓여 준다. 창고지기 생활에 실증을 느꼈던 기임은 창고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다림과 함께 짐을 챙긴다.

다령 (늦춰 국자로 소리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봐요.

기입 (자양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굼벵아, 네가 골라줘.

자양 아냐, 쓸만한 게 있거든 모두 내가 가져.

기입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자양 ㉠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의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낸다.)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기입 (자양에게서 스웨터를 받아 몸에 대본다.) 근사한데!

다령 (자양의 침대 밑을 바라보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기입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자양 가져가요.

다령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진 뭐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령 ㉡ 북어 대가리.....?

기입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양 (북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미스 다령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다령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며) ㉢ 어서 들고 나가요.

기입 (트럭크를 들고, 자양에게) 그럼 잘 있어.

자양 (마지못해 대답한다.) 잘 가....., 가서 행복해.

기입과 미스 다령,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자양은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입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자양과 기입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입 ㉣ (소리) 이 창고 앞의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에 옮겨주고 갈까?

자양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기입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령의 웃음소리도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으로 가득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한.....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봤다구 판단해선 안 돼. (핸들 카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양,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 막 -

- 이강백, 「북어 대가리」 -

44. 연출자가 ㉠~㉣에 대해 연기를 지시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입'은 ㉠을 말할 때 상대의 말이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 ② '자양'은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을 말해야 합니다.
- ③ '다령'은 ㉢을 말할 때 북어 대가리를 이리저리 보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 ④ '다령'은 '기입'을 보면서 보채는 듯한 말투로 ㉣을 말해야 합니다.
- ⑤ '기입'은 무대 밖에서 무대 안의 '자양'에게 들릴 수 있도록 ㉣을 큰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이 작품은 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두 명의 인물로 형상화하였다. 인간의 정신은 육체를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육체를 상실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존재로 남게 된다. 작가는 한 인간의 내면으로 상징된 공간에서 이성적 자아를 상징하는 '자양'과 육체적 자아를 상징하는 '기입'을 통해 개인의 내면 의식의 붕괴를 무대화하여 관객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 ① '잔소리'에 대해서 '기입'과 '자양'이 대화하는 장면은 무기력한 정신을 일깨우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 ② '기입'이 떠난 후 혼자 남은 '자양'의 독백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확신하지 못하는 내면 의식의 붕괴를 보여준다.
- ③ '자양'이 머무는 창고를 '기입'이 떠나는 행위는 한 인간이 정신만 남겨두고 육체를 상실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④ '자양'이 식탁에서 마주하고 있는 '북어 대가리'라는 소품은 육체를 상실해 불완전한 자아로 남겨진 내면의 문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기입'과 '자양'이 먹고 자는 생활마저도 함께 하는 '창고'라는 무대 공간은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